

지황재배농민에게 바란다

는 「수업개방」이라는 용어
뿐이다. 그대로 수업개방 시대에
직무능력 조장과 대로 생활재
를 생산해 온 노동민은 특히
그 시기를 더 좋았 같다.
생산이란 것은 수요와 맞
물려 돌아가게 마련이다. 즉
수요가 없는 생산은 않을 수
도 없다는 뜻이다. 근로를 하 고
생각재의 수요가 있다.

한국 재규격화를 한하면서 농민의 생산활동만 위축시키는 발상을 했었고 그것도 흐지부지하게 암으로 어떻게 될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태인 모양이다. 여하튼 시대가 변하고 주변 여건이 하도 급변하는 세상이니 우리 농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 여건을 예의 관찰해야 할것같다. 이전에 한국생양협회에서 주제로 「북경 1호」라는 지황종근을 농가에 퍼뜨리고

는 2천5백여만톤씩
로부터 수입하여 수요를 충
당해 왔다.

당
은 전부터 우리가 재배하던
지황과는 크게 다르다. 필자
속해 있는 시험기관에서
도 지난해에 그 일을 구하
여 겨우 색록만 관찰해 보고
수량성만 조사해 본 정도로
않은 삼태에서 우선 재배기
술에 대한 불안이 있다. 협
회에서 지난 일년동안 농가
기술이 좋은 희원농가에서

절대크게 재미를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생활에
서는 절대 심지 말아야 할 것
이며 가늘하면 두둑을 놓게
져서 둘째 좋게 해주고
국산보다 괴경이 훨씬 많아
된다.

비자 하기 위한 기술연구에
제를 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
다. 필자도 생양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풀통
에 대한 지름까지 출전된 기
술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며
생산농민들이 처음 심어보는
풀통에 대한 농사가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며 생양
협회의 이번 사업이 우리 생
약을 지키는데 큰 봄을 하게
되길 바란다. 성남슬여구관
(동진청작시 특용작물과)

11

크게 재미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생약 살리기 참여의식으로

본으로
지 흥인
한심과
다년생
초
때인 1590년경부터 재배
했다는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
라에서도 그 재배 역사가 짜
깁령에 속하는 중요한 약용
작물이다. 요즘 들어 UR
• WTO등 우리 농민은 그
뜻도 모르는 용어가 각종 매
스컴을 잡ಡ 메우는 마당에
저 우리 농민이 아프지도

물론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
보다는
제약기업에서의
새상
품개발에
따른
생약재의
수요
증가가
수입을
부채질하
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길게 생각해보지 않고 많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때마다 빠져나와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로써,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지 황의 수 육가 급격히 그리고 많이 증가하는 것은 근년의 일로써 국내산 만으로는 골고루 불충분하여 해마다 작게는 1천톤 많게는

상황에서 그동안 행정으로 규제도
돼있기 때문에 국내산 소비 규제도
나 수입량이 결정되고 있음을 통해
온나 수요업체에서는 터辨别하고 있음을
풀복에서 살펴하여 비판의 틀에
자유롭게 관계부처에 계속 접촉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생약협회의 좋은 짐은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큰

대한
여러를
시작했으므로
대한
여행이지만
여 농가에서는
해야 할 것이다.
줄고 생산적인
문화에 의한 것 같으면 꽤 오래
전에 육성된 품종으로서
역에 따라 재배기술로 다른
것 같다. 우리 연구기관에서
도 금년에 각종 재배기술에
대한
여행에 참

비대면으로 비로소 블록체인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별충해에 대한
식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는 하필기 고운다습 조건에
서의 병발성이 큰 문제이므
로 둘째 관리만은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재
배 수확한 후 단순가공
포장하여 한기원이나 한
약방등에 자주 레不相信 판매
해 왔으나 고지 시행이
후에는 학교원이나 학교
방에서 웨료의약품한약
재)제조업자가 제조한
여러가지 모준제의 결제
규격품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격화 철회
서명은동학산**
그러나 국내 생약
의 여전 미성숙으로 인
해 이 제도가 안고 있는

국내 약용작물이 생산되는
축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농림수산부
와 관련단체 특히 생산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6만여 재배농가 규격화 철회 서명운동 생협·품질규격선행 촉구 정책토론회서

지난해 3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향상과 유통의원화라는 취지아래 95년 4월 1일 시행령717호로 환약재 규격화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며 이 외 데를 같이 하여 농민들 사이에서는 규격화를 밤대하는 서명운동이 조선[협계] 고개를

기 시작한 연대 서명 통
이 급기야는 6·25에
배 농민들을 전국적인 규
모로 파급 확산된다.
국내산 17개 풀에
대해 규격화 구하는
진정서와 서명 네이
이 절 앓는 가운데 농민들의
94년 한국 끊임없이
4월

체 과에 협회연장을 제
출, 6월 28일로 제1차
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국내선 17종에 대한 규
제화 철거 일정을 재확인
하는 한편 8월 4일 기
자간담회를 통해 「한약
재 구경화 우선순위는
수입한약 재와 가공(업)
체하지 않으면 유통하

당이 실제로는 한약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을뿐 아니라 내 생약재배 농가들과 관련된 체계를 무시한 탁상관의 소신이라는 여론을 받게된다. 화살을 행을 전제로 일관화되며 보건복지부는 규격화 강행을 전제로 일관화되며 194년 8월 18일 마침

• 전시회연구원에서 규제화된 학제적 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 단체들은 규격화된 균형화된 회의에 모두 참여하도록 하면서도 시행기와 부구전에 있어 많은 다양성이 있을 것을 지향하는 등이다.

생양회는 국내산 17 종에 대한 규격화 고시 (안)의 철회 또는 개장장을 재 촉구하는 내용이 진정서를 생산농민들이 서명날인과 함께 보자기록지부와 국회에 제출되었 다. 이를 접수한 행정부 신위는 농협조합부와 보건복지부 관계단체들이

재배농가 규격화 철회 서명운동